

科總 제32회 정기총회 성황

금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회 과총정기총회에서 **崔亨燮**회장이 개회인사를 하고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월 27일 하오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199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 올해 사업의 기본목표를 ▲학회·학술활동의 중점 육성 ▲과학기술의 국제화 적극 추진 ▲과학기술봉사활동 및 풍토조성 등에 두고 주요 역점사업으로 △과학기술정책개발사업 △학회·학술활동육성 및 정보화 추진사업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고급두뇌활용사업 △과학기술봉사활동 및 풍토조성사업 △남북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교류추진사업 △회원단체협력사업 △과학기술봉사단 및 과학기술전문도서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姜昌熙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을

비롯한 **閔寬植** 명예회장, **趙完圭**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및 연구기관대표, 회원단체 대의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趙顯麒**경북대교수의 「과학기술인 신조」낭독으로 시작 **崔亨燮** 과총회장의 개회사, **姜昌熙**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유공자 시상에 이어 **李傑三** 사무차장의 회무보고를 거쳐 의안심의가 있었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구축을”

- **崔亨燮**회장 개회사

이날 **崔亨燮**과총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과총은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조류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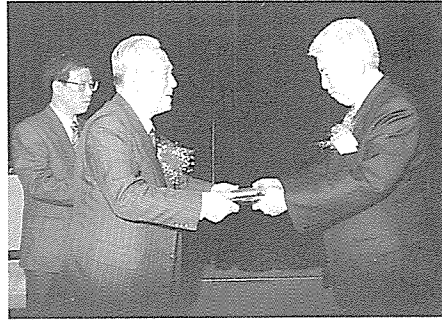
을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제하고 “올해에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당국에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학회·학술활동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인 우대풍토의 조성,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대변자적 역할 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이어 “1997년은 과총이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업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다 같이 염원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맡은바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며 국제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뿐만아니라 거국적인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산업기술력 향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새지평 열기를

- **姜昌熙**위원장 축사

또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姜昌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으로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은 물론 전국민의 과학기술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해 온 과총의 역할과 업적을 치하하고 “오늘 과총 정기총회가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지평을 확산하고 모



▲ 崔亨燮회장이 국회 姜昌熙통신과학기술위원장(왼쪽)과 金德龍과학기술연구회장에게 특별공로패를 수여하고있다.

든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德龍회장 등에 공로패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과 과총 발전에 기여한

국회 姜昌熙통신과학기술위원장과 金德龍과학기술연구회장에게 특별공로패가 증정됐으며 과총의 각종 사업 및 홍보보도 등으로 크게 협조한 崔石植과기처기술인력국장, 尹在錫중앙일보 과학기술부차장 등 5명에게 감사패가, 李鎔澤한국정보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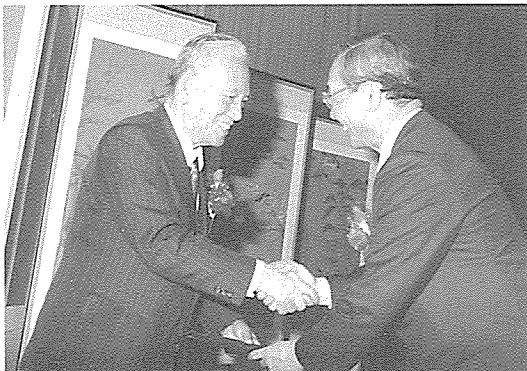
사무국장, 林炯周 과총총무 본부과장 등 6명에게는 표창패가 주어졌다.

총회이어 축하연도 열어

한편 총회에 이어 열린 축하연에는 李富植과기처 차관을 비롯한 韓榮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金基衡초대과기처 장관, 權彝赫성균관대이사장, 朴肯植경북대 석좌교수, 朴泰源KAIST이사장, 국회 李應善의원(신한국당) 등 관계인 사들이 참석, 과총 제32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및 과총육성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崔亨燮과총회장 한국공학기술상 수상

연구·정책부문 본상, 과학기술진흥·풍토조성에 공헌



▲ 李基俊한국공학원회장이 崔亨燮회장(왼쪽)에게 제1회 한국공학기술상·연구정책부문 본상을 수여하고 있다.

장은 3월4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공학원 주최로 열린 제1회 한국공학기술상 시상식에서 연구 및 정책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최형섭회장은 급속공학분야에서의 학문적인 공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의 효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연

구소장으로서 소위 능력별 연구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 산재한 과학기술인력 유치의 길을 터 놓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과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밖에도 金善弘기아그룹회장이 경영 및 기술부문 본상을, 陳大濟삼성전자(주)대표이사부 사장이 젊은 공학인상을 받았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억원씩, 젊은 공학인상 수상자에게는 5천만원의 부상이 주어졌다. 최회장은 이날 상금으로 받은 1억원을 KIST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한편 한국공학기술상은 우리나라에서 공학과 관련된 학계 산업계 및 국가기관 등에서 공학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 기술인을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창조적인 공학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崔亨燮회 술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연